

여하에 즈음하여

On the Publication of the Bulletin

所長 陸 芝 修
經濟學博士

20世紀 後半期에 들어서면서 「매스·콤」은 더욱 長足的인 發展을 示現하고 있다. 近代에 있어서의 「매스·콤」의 發展은 여러面에 큰 革命을 갖어 왔다고 하더라도 過言이 아니다. 政治 經濟가 「매스·콤」의 影響을 받는 것은 勿論 學問에도 「매스·콤」의 威力은 浸透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所謂 記述的 地理學(Beschreibende Geographie)의 後退는 그 典型的인 例의 하나이다. 記述的 地理學은 近世初期 商業資本主義의 發芽期에 있어서 商業貿易의 指針 그 不可缺한 知識으로서 實踐的 意義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地理學이 新興市民階級の 生活實踐의 指導者로서 遂行하던 職能은 現在의 「매스·콤」에 依하여 代行되고 있다. 現實의 經濟活動 例컨데 商品의 國際的 去來 世界 交通에 必要한 具體的 知識은 記述的 地理學에 依해서는 獲得하기 어려운 段階에 이르렀다. 이러한 知識을 現實的으로 供給하는 職能은 組織化된 「매스·콤」의 負擔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記述的 商業地理學의 役割은 商業資本主義가 產業資本主義 乃至 金融資本主義에 移行 또는 高度化함에 따라 「매스·콤」으로 轉嫁된 것이다. 이와 같이 「매스·콤」은 生活實踐의 指導者로서의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記述的 地理學이 그렇듯이 「매스·콤」도 體系없는 知識의 集積을 能事로 한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亦是 生活實踐의 指導者로서의 役割은 아니었다. 「매스·콤」도 資本主義의 高度化에 따라 그 自身을 새로운 社會에 適合하도록 變貌해야 했다. 이를 爲하여 「매스·콤」의 學問的인 開拓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世界의 先進國에서는 일찍부터 「매스·콤」에 對한 研究가 進捗되고 있었다. 이것은 近代統計學이 資本主義의 母國인 英國에서 눈부신 發展을 갖어온 것과 같이 資本主義가 가장 高度化한 美國에 있어서 新聞學의 發展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國에 있어서는 新聞學이란 말은 解放後 비로소 導入된 用語이다. 그러나 「매스·콤」의 뒷받침을 하는 이 新聞學이 科學으로서의 獨立性을 主張하게 된 것은 極히 最近의 일이다. 아니 아직도 完全한 獨立性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매스·콤」은 아직도 充分한 學的 뒷받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4·19와 5·16 以後 世論은 우리나라 新聞의 姿勢에 對하여 여러모로 批判이 加해졌다. 즉 新聞의 倫理性·報道의 正確性·迅速性·公正性等 等を 中心으로 많은 論議가 있었다. 이러한 여러 問題에 逢着하게 되자 學問으로서의 新聞學이 크게 「클로즈·업」하게 되어 大學에 있어서도 新聞의 研究의 必要性이 痛感되고 드디어 1963年 3월에 서울大學校에 新聞研究所의 創設을 보게 된 것이다. 本研究所는 創設한지 不過 1년에 지나지 않으나 新聞學을 研究하려는 熱意를 가진 사람들이 1個年이란 짧은 時間에 「매스·콤」의 各分野에 걸쳐 진지한 研究를 하게 되었다. 研究生中에는 「매스·콤」에서 實際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研究만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合心하여 研究한 結果가 이 論集으로 나타났다. 1年間의 研究成果인 것이므로 未熟한 點이 많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學問的으로 新聞을 研究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最初의 論集이 아닌가 생각된다. 創設 1年만에 이러한 論集이 나오게 된 것은 研究生의 努力과 指導하신 先生님의 勞苦의 結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小冊子이기는 하나 이것이 우리나라 「매스·콤」研究의 「마일스톤」이라고 自負하며 기꺼이 世上에 이 冊을 내놓는 바이다. 今後 이 論集이 우리나라 「매스·콤」研究의 中心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